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Ewha Womans University United Alumnae Chapters of North America
47 Stone Hill Dr. South, Manhasset, NY 11030 Tel. 917-881-6500
Email: ewhany2017@gmail.com / www.ewhain-na.com

NONPROFIT
U.S. POSTAGE PAID
FLUSHING NY
PERMIT NO.2004

Change Service Requested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모마 뮤지엄 자연사 박물관
구겐하임 뮤지엄 휘트니 뮤지엄 프리크 컬렉션
클로이스터 뮤지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아메리칸 발레 씨어터 브로드웨이 뮤지컬
링컨센터 뉴욕필하모닉 카네기홀 자유의여신상
라디오 시티 뮤직 홀 메디슨 스퀘어 가든
유엔 본부 소호 거리 월스트리트 피어 17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첼시 마켓
퍼블릭 라이브러리 그라운드 제로 911 뮤지엄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엠파이어 스테이트빌딩
하이라인 브루클린 브리지 덤보 록펠러 센터
허드슨 강 페리 세인트 패트릭 성당
세인트 폴 성당 롱아일랜드 센트럴 파크
타임스퀘어 유니언 스퀘어 그리니치 빌리지
차이나 타운 코리아 타운 리틀 이태리
미트 패킹 디스트릭 브루클린
5th 애브뉴 우드버리 아웃렛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EWHA WOMANS UNIVERSITY
UNITED ALUMNAE CHAPTERS OF NORTH AMERICA

Welcome to
EWHA NEW YORK 2017
October 26-29, 2017

TEANECK MARRIOTT AT GLENPOINTE HOTEL

Lighting The Future



발행인: 박영숙

편집인: 민선기, 김은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김혜숙

미주지역 동창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16대 총장에 취임한 김혜숙입니다.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나마 인사드리게 되어 반가운 마음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나 모교를 생각하는 마음은 한국에 있는 동창 못지않은, 어쩌면 더욱 간절한 분들이 해외에 나가 있으신 동창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해 이화사태는 동창들에게는 매우 가슴 아픈 일로 기억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자랑스럽게 여겼던 학교에서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많은 동창들이 이화 졸업생으로서 자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화의 구성원으로서, 30년간 학생들을 가르쳐왔던 선생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이제 새 총장으로서 실추된 이화의 명예를 회복하고, 동창들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곧추 세우는 일에 전력투구할 것임을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화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최대 여자대학의 길은 그 누구도 걷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뒤돌아보면 이화의 역사는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새롭게 만들어온 경이로운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여성지성 공동체로서의 이화를 계속 지키고자 한다면, 좋건 싫건 이 길을 계속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은 우리의 소명이기도 하고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어느 대학과도 다른 대학의 운명을 태생적으로 갖고 있기에 우리 동창들은 강한 유대를 바탕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전 세계에 나가 강인한 한국여성으로, 강인한 이화인으로 자기 삶을 개척해나가고 있는 우리 동창 여러분은, 이화를 증명하는 또 하나의 큰 힘이며, 이화 발전의 중요한 동력입니다.

미주지역은 그 어느 지역보다 이화 동창들이 많이 모여 있고, 동창회 활동도 매우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유학생으로 미주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화 동창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아 제 생애 첫 컴퓨터를 샀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가난한 유학생으로 엄두를 내지 못했던 컴퓨터를 동창회 장학금으로 사고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화의 일부라는 자랑스런 느낌과 감동을 오래 전 그 경험을 통해 갖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모두 상이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화 캠퍼스에서 4년 혹은 그 이상을 지냈던 공통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억의 힘으로 더욱 아름다운 이화를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창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멀지 않은 때에 직접 만나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장
김영주

북미주지회연합회 이화동창 여러분!

지난해 휴스턴에서 여러분과 만나 즐거운 추억을 쌓은 게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벌써 해가 바뀌어 뉴욕에서 동창 여러분을 뵙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올해도 '이화'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기 위해 북미주 곳곳에서 먼 길을 달려오는 이화동창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쓴 뉴욕 지회 박영숙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께도 큰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뉴욕 지회는 총동창회 산하 지회 중 가장 크고, 가장 활기차고, 모든 행사에 가장 열심인 곳 중의 하나입니다. 세계 문화의 수도, 세계 경제의 중심지 뉴욕에 모인 이화동창들에게도 그 활력과 좋은 기운이 골고루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뉴욕에서 열리는 이번 총회에 대한 기대감과 든든함, 그리고 감사함이 어우러진 가운데 저는 여러분을 만날 일이 기쁘고 설레기만 합니다.

지난해 이화는 창립 130주년이라는 뜻 깊은 시간을 맞았습니다. 1년 중 가장 좋은 5월, 이화 창립기념 '동창의 날' 행사에는 많은 동창들과 내외 귀빈이 참석해 한국 최초의 여성 고등교육 기관 이화의 탄생을 축복하고, 세계 최고이자 최대의 여성 고등교육 기관을 지향하는 이화의 앞날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해외 지회 동창, 특히 북미주 동창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행사가 한층 빛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이화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창립 이래 한 번도 겪지 못한 시련을 겪고, 학내 각 구성원 간의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작된 총장 선출 4자회담(교수, 동창, 직원, 학생)은 3개월 이상 시간을 소요하였지만, 화합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북미주에서 모교와 총동창회 걱정을 많이 하며 열심히 기도해 주신 북미주지회 동창 여러분 덕분에 이화가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모교의 정상화를 기원하면서, 총동창회도 올해는 예년처럼 계획된 행사를 최선을 다해 치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동창회는 100년이 넘게 지켜져 내려오고 있는 이화 정신, 즉 나눔과 봉사, 섬김의 오랜 진선미의 전통을 지키는 동시에, 세대 간 다름을 존중하고 화합하는 리더십으로 동창 모두를 포용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화는 지금 또 다른 출발점에서 있습니다. 총동창회는 모교와 함께 새로운 이화의 역사를 열어갈 것입니다. 총동창회가 '이화'라는 이름으로 멋진 하모니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모든 동창들과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북미주지회연합회 동창 여러분

어느새 여름이 성큼 다가와
풍성한 신록이 반가운 6월입
니다.

우리 북미주지회연합회 동
창 여러분 모두 안녕하시지
요? 올해에 연합회 이사장의
직책을 맡은 김명옥입니다.

지난해에 휴스턴에서 "Ewha
The Glorious Story" 라는 주
제로 총회를 개최하며, 어찌하
면 더욱 알차고 기쁨이 넘치
는 만남이 될 수 있을까 고심하
던 일이 었그제 같은데...

부족한 저를 도와 총회를 잘 마치게 해주신 동역자들과 새
로이 참석하여 만남의 기쁨이 배가 되게 하신 한 분 한 분 모
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7년에는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뉴욕에서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뉴욕지회 박영숙 회장님과 임원들
께 감사드리며, 이번 총회에도 더 많은 동창들이 참석하셔서
해마다 더 발전하는 북미주지회연합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
음입니다. 또한 이런저런 일로 우리의 모교가 어려울 때 우
리 이화인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힘을 보
탤 수 있다면 참 좋겠지요.

뉴욕에서 뵈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생업과 자
녀들에게 우리 삶의 주관자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북미주지회연합회 이사장
김명옥(경영 75)

뉴욕에서 뵈어요!

존경하는 이화여대 북미주
지회연합회 동창 여러분...

올해, 2017년도 북미주 지회
연합회 총회 회장을 맡은 박영
숙입니다.

휴스턴에서 여러 동문들을
만나뵈온지가 었그제같은데
벌써 초록의 계절, 6월입니다.
정유년 2017년을 맞아 새로
계획하는 일들이 성취의 기쁨
으로 하나 하나 채워져가는 행
복한 시간을 맞고 계시는지요?
그러하시리라 짐작해봅니다.

해마다 이화인만의 특별한 긍정에너지를 주고 받을 수 있
는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가 올해는 10월 26일부터 29일까
지 이 곳 뉴욕에서 열립니다.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이 자리
에 동창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World Capital 뉴욕은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 수준의 Met
Museum을 비롯한 뮤지엄의 천국이며, Met Opera,
Broadway Musical, New York Philharmonic 등 최고 수준
의 음악이 있으며, 패션, 경제, 학문 등 그야말로 보고 싶은
것과 듣고 싶은 것, 그리고 느끼고 싶은 것들로 가득합니다.
이제는 스카이 라인이 새롭게 바뀌어 911 Memorial
Museum 이 많은 이들의 발길을 옮기게 하고 있으며, 옛 철
길을 복구하여 도심속의 공원을 조성한 High Line이 또한
새롭게 뉴욕의 풍광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4년동안 모교에서 배운 진선미의 정신에 자부심을 더하여
북미주 곳곳에서 자신의 완성과 더불어 건강한 사회적 구성
원으로 자리매김하기에 힘쓰며 살아온 저희는 그때 배운 바
대로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며 정진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일
상에서 잠시 3박 4일 동안의 이화인만의 여행으로 떠나 오시
기를 기원해 봅니다. 일 년에 한번 다같이 모이는 이 자리
에서 성장기를 같이 보낸 끈끈한 인연을 되새기며 이야기 보따
리를 풀고, 소식을 전하고, 모교를 돌아보며, 봉사과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흐뭇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를 위해 뉴욕지회는 온 힘을 모아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동창 여러분 모두 참석하시어, 뜻 깊은 이 자리를 빛내 주
시기 기원드립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북미주지회연합회 회장
박영숙(경영 86)



2016년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휴스턴을 다녀와서

2016년 북미주 총회 지회연합회가 텍사스
휴스턴에서, 지회연합회 이사회가 열린 것을
시작으로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열렸습
니다.

먼 이국땅에 민들레 홀씨처럼 뿌리를 내릴
땅을 찾고, 살아남기위해 비바람을 견디고 살
아온 이화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총회는 오랜
기간동안 행사를 위해 꼼꼼하게 준비해주신
휴스턴 팀의 노력으로 한층 빛나고 충만한 시
간을 우리에게 주는 이화라는 하나의 공동 뿌리,
금지과 자부심을 느끼게 해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11월 3일(목), 도착하는 뉴욕팀을 환
한 미소로 맞아주시는 휴스턴 팀을 처음으로
뵈게 되었습니다. 생애 처음 뵈는 선배님들
께서 그저 이화라는 이름 아래 따듯이 저희를 맞
아주셨고, 저희는 간단한 체크인 후 정성껏
준비해주신 프로그램 일지와, 세심한 gift
bag을 건네 받았습니니다.

간단한 식사가 이어지고, 동창들끼리 서로
인사를 건네며 어디서 오셨냐며 환한 미소가
끊이지 않는 대화들이 건네지곤 했습니다.

2016년 11월 4일(금), 만찬의 밤이 있는 날
이었습니다. 세미나와 투어 등 휴스턴 팀이 사
려깊게 준비해준 프로그램을 참석하고, 만찬
밖에 있을 Talent Show를 위해 틈틈히 준비

를 하며, 그렇게 시간가는 줄 모르게 만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한눈에 보아도 정
성이 가득한 만찬의 장소는 테이블 하나하나
마다 놓인 부케와 세팅으로 동창회 한분 한분
을 귀하게 맞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각 지회
팀들의 협동심을 볼수 있었던 talent show는
선배님들의 끼와 재능을 볼수있는 참으로 기
억에 남을 만한 시간이었습니다.

2016년 11월 5일(토), 총회의 날이 밝고 총
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총회에 졸업후 처음 참
석해 보는 저는 참으로 오랜만에 교가를 불러
보았습니다. 선배님들과의 교가 제창은 저에
게 참으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습니
다. 2015년 결산, 2016년 예산 보고 등 여러
총회 관련 안건및 보고, 각 지회장님들의 보
고등이 이어졌습니다. 졸업 후에도 이렇게 똘
쳐 체계적으로 모임을 만들고 운영해 가시는
선배님들을 바라보며, 이화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총회 모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많은 교
류가 일어날수 있도록 짜여 있었고, 저만이
느끼는 아쉬움인지, 아니면 모두가 느끼는 아
쉬움인지 모를 끝을 향해 흘러가는 시간이 야
속한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화 뿐만이
아닌 휴스턴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더 할 수



윤선희(건축 04)
뉴욕지회

있도록 밤을 새어가며 준비하고 노력해준 이
화 휴스턴 팀의 노고로 알차고 기억에 남을 시
간을 동문 선배님들과 함께 할수 있음에 감사
한 시간이었습니다. 호텔 방에 모여 삼삼오오
담소를 나누다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총회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휴스턴 팀
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며 3박 4일
을 지내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며,
2017년 총회를 하게 될 뉴욕팀과 의기를 다짐
하였습니다. 경험을 갖추신 현명하신 선배님
들과 함께하기에 든든한 마음과 설렘을 안
고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총회를 위해 최선
을 다하시는 휴스턴 팀이 전해준 팀과 여러 자
료들에 감사하고, 2017년 10월에 다가올 뉴욕
총회에 참석하실 많은 동문 선배님을 빌 설레
임으로 가득찬 뜻 깊었던 저의 첫번째 북미 총
회 참석은 그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화라는 끈이 맺어준 인연... 재학시절에
알던 이화에 대한 생각과 또 다른 색의 리본이
랄까? 이화인임이 새롭고 자랑스러운 시간이
었습니다. 많은 수고 해주신 휴스턴 팀에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뉴욕, 꿈꾸는 도시

그 얘기를 꺼내자니, 꼭 고백하는 느낌이 든다. 왜냐하면 아직껏 누구한테도 그 구두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처음 미국에 오게 되었을 때, 트렁크 속에 마치 보물을 감추듯이 그 구두를 싸들고 오게 된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다. 1980년대만해도 한국에서 외국을 나가는 경우는 지금처럼 그리 흔한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런지, 이미 캐나다에 이민가서 살고 있었던 고모 한 분이 나들이 차 한국을 방문할 때면 집안의 여인네들은 왠지 모를 흥분에 휩싸이곤 했는데, 그건 고모의 여행가방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으리라. 나도 덩달아 눈요기와 함께 호사를 누릴 기회에 희희낙낙 하곤 했다. 그 때 내 뒤통으로 돌아 온 것이 한 켤레의 구두였는데, 검은색 새틴에 보라색 뒷굽 장식을 가진 찰스 주르낭이라는 브랜드명이 선명한 정인정신이 돋보이는 그런 펌프스였다.

"혜진이, 너 미국가게 됐다며... 가서 신으면 어울릴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말이다. 나도 신데렐라 이야기를 듣고 자란 여자애임이 분명했던 모양이다. 그때까지 그렇게 예쁜 구두를 접해 보지 못했던 나로서는 그 구두가 발에 신는 신발이상의 대상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다. 무도회를 넘어서 어떤 환상과 함께... 흠을 물기엔 어딘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구두였기에 결국 한국에선 한 번도 신어 보질 못했었고, 결국 그 구두는 이민 가방에 실려서 나와 함께 미국에 왔던 것이다. 누구를 쫓아 버리기엔 내가 그 구두를 너무 아끼고 좋아하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미국에 가면 그 구두를 신을 기회와 장소가 날 기다리고 있을거라는 무의식적인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뉴욕에서 나와 그 구두의 황홀한 행차는 그리 쉽게 찾아오질 않았다. 학교도 다녀야했고, 건어물이나 된장 고추장 같은 먹거리나 잔뜩 가져왔으면 보탬이 될 그런 날들이 계속 되면서 그 존재는 나에게서 점점 잊혀져 갔고, 남편에게조차 그 구두에 걸 꺼낼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었다. 내 스스로 생각해봐도 너무나도 일도탕당한 선택에 실소가 나왔으므로...

나는 뉴욕에서 살아왔고, 뉴욕에서 살고 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며 오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 뉴욕에 살고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곳은 많은 사람들의 꿈이 교차하는 곳이다. 누구에게는 아직 씨앗의 상태일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이미 만발한 꽃의 상태로 그 꿈을 실현시켰을 수도 있겠다. 이런 꿈들이 만들어내는 파장이 늘 왕성함으로 뉴욕은 생동감을 잃지 않는 것 같다.

그 파장 한 축에 몸을 맡기고 나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다. 돈을 벌었고, 가족수는 늘어 났고, 사업을 확장하고... 이렇게 30년을 살고 나니 비로서 파티에도 가게 될 날이 오는 걸 그 때는 몰랐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구두가 나에게 맞질 않는다. 나의 발은 더 이상 조막만 하지 않다.

우리 고모도 이미 세상을 떠나고 안계시지만, 난 가끔 그 날

을 생각해 보곤 한다.

미국 간다는 조카에게 그 예쁘기만한 구두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사실상 이민 선배로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충고나 고생 좀 할거라는 인고의 여행 연습 같은건 생략하시면서 말이다. 닥치면 부딪치면서 해 나갈 일을 미리 겁주는 것도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던 것 같다. 대신에 그런 것들을 모두 미화하고 포용할 꿈의 매개체를 나에게 안겨 주신 거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인간이 가진 꿈을 꿀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난 내가 살고 있는 뉴욕이 지금껏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많은 꿈꾸는 자들의 destination이 되길 희망해 본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른 사람들의 꿈에 대해서도... 이 나이에 나를 향한 꿈만 꾸어서야 되겠는가... 발품이 넉넉한 운동화가 필요하다. 지금은, 꿈이 없는 곳에 꿈을 실어나르는 그런 일을 하려면... 이것이 나의 새로운 꿈인가 보다.



한혜진(영문 80)
뉴욕지회



지회소식

Alaska 지회

회장: 김명순(간호 62)

- 알래스카지회에서는 매년 4회 (3, 6, 9, 12월) 8명의 동문이 친교위주로 정기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간 회비중 일부를 적립하여 원금 \$10,000을 국제재단에 십여년간 거쳐서 기부했고, 이자로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후 연로하신 동문들이 많으셔서 활동은 친교모임만 갖고 있습니다.
- 2016년에는 김명순, 천규은 동문이 이화웨이브 모금에 동참했고, 간호학과 건물신축 모금에도 김명순(간호 62)동문께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또한 휴스턴지회에 북미주연합회 지회비를 지원했습니다. 숫자와 상관없이 지리적 특수성을 배려하여 알래스카지회를 2000년 10월에 승인해주신 본교 총동창회에 감사하여 15년간 지회동문은 전원 100% 의무를 준수하였습니다. 항상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명순 동문께서 2016년부터 영구 지회장님이 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합 지회비 지원과 서울 총동창회 연회비 삼만원 납부의무를 성실히 지켜 나갈 것입니다.



Atlanta 지회

회장: 장명옥(영문 81)

- 2월 > 정기총회를 서라벌 식당에서 개최했습니다. 총 36명이 참석하였고, 2015년도 서기록 낭독, 회계결산보고, 감사 보고를 했습니다. 2016~2017을 이끌어 갈 신임 회장 장명옥 동문(영문 81)을 만장일치로 선출하였습니다. 전 회장 및 임원들께 감사패를 증정하였고, 신임 임원 발표가 있었습니다. 함창단과 골프회 활동 안내와 2월에 생신을 맞은 동문 축하, 신입회원에 대한 환영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 3월 > 따뜻한 봄날에 가졌던 모임에서는 본교 130주년 기념모금에 대한 안내와 2015년 아틀란타에서 열렸던 북미주 지회연합회 DVD와 CD를 무료로 배부하였습니다.

- 4월 > 황성희 동문(유아교육 74)의 과테말라 선교보고가 있었고, 탄자니아 선교사인 홍신옥 동문(종교음악 73)과 황성희 동창에게 소정의 선교비를 전달하였습니다.
- 6월 > Jones Bridge Park에서 가진 이화가족야유회에서는 더운 날씨지만 시원한 아이스커피와 수박으로 열기를 식혔고, 동문들이 준비해 온 다과를 나누며 즐거운 오락시간을 가졌습니다.
- 8월 > 휴스턴 총회에 대한 안내와 참가신청 접수를 받았고, 한미장학재단 남부지부 장학금 수여식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지회 명의로 매년 한 학생에게 \$1,000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9월 > 정기이사모임에서는 휴스턴총회 참석자들을 위해 \$1000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총회 참석자 호텔 숙박비를 참석 독려 차원에서 전액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 10월 > 나루스시식당에서 26명이 모임을 가졌고, 11월에는 휴스턴 총회를 위한 준비모임이 있었습니다.
- 12월 > 이영임 동문(섬유예술 86)댁에서 열린 연말모임에 50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제법 추워진 날씨임에도 많은 분이 오셔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정다운 대화 속에서 맛있는 식사를 한 후, 신나는 게임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공연 시간에는 휴스턴총회 텔레트쇼에서 1등상을 받은 함창곡 '넬라판 타지아'와 '꽃을 드려요'를 불러 축하 박수를 받았고,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길 기원하며 한 해를 정리하는 모임을 마쳤습니다.



Baltimore 지회

회장: 김정현(정외 59)

- 2016년 4월 > 조성주(약학 61) 회장의 초대로 Turf Valley Golf Club에서 37명의 동문이 모였습니다. 이화국제재단부회장인 홍경주(약학 62)동문이 이화국제재단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하였고, 11월에 있을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행사를 설명하며 많은 동창의 참여를

도려하였습니다.

- 2016년 10월 > 동문회에서는 총20명이 참석하였고, 새로 오신 동문소개를 시작으로 단합과 친목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영선(가정 66) 전 회장이 지난 5월 모교 방문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캠퍼스 대운동장 자리에 지하7층 규모의 건물이 지어진 모교의 발전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 2017년도 총회에서 새 회장단과 임원 그리고 고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회장 김정현(성외 59), 총무(법학 석사 82), 회계 이승숙(불문 86), 고문단 홍경주(약학 62), 조원숙(약학 59), 조성주(약학 61), 지명희(약학 71), 최영선(가정 66), 유명숙(미술 77), 동창회는 고문단과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장학기금 모금과 문화 교양클럽을 만들어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첫번 모임에서 바리톤 안영수씨를 초대하여 오페라 아리아와 가곡 연주를 감상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 2017년부터 고문단을 구성하여 이화국제재단에 Baltimore Chapter 장학기금을 금년 상반기에 \$10,000을 달성하였고, 계속 증가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고문단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경주, 김정현, 조원숙, 조성주, 최영선, 박은선, 지명희, 유명숙



- 2016~2017년을 이끄는 새 임원진을 구성하였습니다. 김흥혜 이사장(가정 64), 박순혜 회장(국문 73), 김지영 부회장(교육 82), 신은경 회계(법학 88), 박영복 고문(영문 61)이 선출되었고, 지회연합회 선출이사로는 김경애(의과 70), 김희선(법학 77)동문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 동창 모임 때마다 노래 연습을 하여, 동문들의 경조사에 노래를 불러 드릴 계획입니다. 2016년 장학생 공모에서 최신자 동문을 선정 수상하였습니다. 봄 모임에서는 노래연습과 율동 시간을 가지고, 여름 피크닉때는 온 가족이 함께 게임과 노래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을에는 동문들이 모여 송편 만들기를 했습니다. 11월 휴스턴 총동창회에 장기자랑 시간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불러 3등을 수상하였습니다.
 - 2017년 3월, 김흥혜 이사장(가정 64)님께서 염색 작업을 배

우고 직접 스폰지붓으로 염색 실습을 하였습니다. 13명의 동창들이 한 번씩 염색한 것을 김흥혜 동문께서 마무리 작업을 하시자 멋진 작품이 되었습니다. 스텝 후에 색을 여러번 뱀 후, 말려 다리니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모임에서는 각자의 작품에 사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일 동안 정성들여 준비하신 맛있는 요리에 염색체험학습까지 준비해 주신 김흥혜 동문님, 그리고 푸근하신 정으로 맞아 주신 부군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쿠션작품을 하나씩 선물 받아 가슴에 안고 가는 우리의 마음에 무지개가 떠 올랐습니다. 볼 때마다 선배님 생각하며 감사드릴것입니다.



- 작은 겨자씨 하나로 태어난 우리 신시네티 지회는 친선모임으로 일년에 4회 (3, 5, 9, 11월) 둘째 금요일에 모입니다. 15명의 소규모 지회이나 이화인이라는 자부심과 모교를 사랑하는 큰 마음들이 있습니다. 매년 동창회비를 잊지않고 모교에 전달하며, 선배라면을 비롯하여, 2016년 이화 130주년 One Million Dollars 장학금 모금운동에도 많은 동문들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모교 기숙사 건축비로 김영채 회장께서 \$10,000을 기부하셨습니다. 1955-1959년, 4년간의 이화기숙사 생활이 평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고 멋진 열매로 익어 가던 시절이었다고 하셨습니다. 2017년에는 모교 Wave project에 신시네티 지회에서 \$2,500을 약정 했습니다. 항상 이화의 모토! 진, 선, 미를 살아가려 노력하는 우리 겨자씨들입니다.



Cleveland 지회

회장: 임영미(교육 83)



- 클리블랜드 지회는 1974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매월 "이화 만남"을 가지며 서로 유익한 정보를 나누고 동문들의 경조사를 돕는 가운데, 동문들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회에서 기금을 모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 사회의 기관과 시설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화발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국제재단을 통한 장학금 지원과 모교의 기숙사 건립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 1월 > 임영미(유교 83) 회장님께서 모여 오찬을 나누고, 동창회의 1년을 계획하며 동창회 발전을 위한 의견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 2월 > 노희용(약학 82) 동문대에 모여 오찬을 나누는 후, 타이찌를 배우며 심신을 단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3월 > 본교와 자매학교인 Baldwin Wallace University 에 교환학생으로 와 있는 후배들을 만나 격려하며, 세대차를 넘어 "이화"의 이름 아래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을 보냈으며, 후배들에게 선배들의 사랑을 담은 격려금을 전하였습니다.
- 4월 > Cleveland Clinic Hospital, Marymount Hospital에서 정신과 의사로 근무하는 김정진(의학 72) 동문으로부터, "우리들의 정신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라는 제목으로 우리들의 정신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 6월 > 인명숙(약학 73)동문님께서 정성껏 준비하신 "집밥"을 감탄사를 연발하며 맛있게 나누는 후, 현재 모교의 대대에 재학 중이며 단기로 Cleveland Clinic에서 연구 중인 박영미(의학 96) 동문으로부터 "의과학"이란 학문의 연구와 목적에 대해 강의를 들으며,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새로운 분야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 7월 > 이화의 대선배이신 이숙자(영문 47)동문의 Memorial Service에 참석하여 평생을 미국의 대학교수로서 후학양성의 소명을 다하셨던 선배님의 열정적이었던 삶을 함께 회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8월 > Cuyahoga Community College 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문성애(생미 81)동문대에 모여 오찬을 나누는 후, "Design & Art as a Hobby"라는 주제의 강의를 듣고, Art에 관한 관심을 키우며 함께 친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9월 > Cleveland의 Asian Evergreen Apt에 사시는 한인 어르신들을 모시고 추석을 맞아 점심을 대접하며, 어르신들로

부터 삶의 지혜를 듣고 배우는 뜻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11월 > 임영미(유교 83)회장님께서 일년을 정리, 보고하는 회의를 한 후, Jumba Dance를 배우며 동심으로 돌아가 많이 웃으며 동문간의 정을 나누는 유쾌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문간의 귀한 만남이 오래오래 계속되어지길 바랍니다.

Edmonton 지회

회장: 조용옥(국문 73)

- 2016년 8월 19일 조용옥(국문 73) 회장 주선으로 독일 거주 김영식 작곡가를 초청하여, 캐나다 한인 창작 가곡 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동포시인들의 시와 노래가 만난 음악회로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 "문학과 지성"으로 문단에 등단한 조용옥 회장의 제2의 시집 "씨 뿌리는 계절"은 소설가 탄천 이종학 선생님이 'This Time'이란 문화 신문 기사를 통해 그 진면목을 표현 해주셨습니다.
- 이화인이 어느 곳에서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긍지를 갖게 해 주셨습니다.



Houston 지회

회장: 정미선(수학교육 85)

- 1월 > 노인회관에서 24명의 동문이 150여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구정맞이 떡국잔치를 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20년째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 2월 > '건강한 한 해 보내기'라는 주제로 필라테스 강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김성숙 동문(피아노 66)의 부탄 난민 선교활동과 동영상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지회에서는 매달 첫주 화요일에 건강 걷기 모임을 하고, 셋째 화요일에는 정기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 2017년 4월 > 장학기금 마련 가라지 세일을 하여 모은 성금으로, 5월에 도움이 필요한 크리스찬 여학생 2명에게 각 \$1000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 2017년 12월 > 연말 파티를 하는 것으로 한해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Minnesota 지회

회장: 홍성주(경영 89)

- 2016년 5월 동문총회 및 만남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날 총회에는 오색나물 비빔밥과 전으로 맛난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총회 안건으로 새 회장단 선출 및 인준, 국제재단 기부금에 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새 회장단은 회장 홍성주 동문, 부회장 김정은 동문, 회계 안수희 동문, 총무 김지연 동문입니다. 총회 이후 박은경 동문께서 미네소타 입양아들의 웰빙에 대한 좋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6년간 동문회 회계를 맡아주셨던 박은경 동문께서는 5월 말 산호세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동문들께 보내는 인사글을 보내와 그간 정들었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고 더욱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임혜순 동문(약학 85학번)께서 오랫동안 동문회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반가웠고, 또 뵈게 되길 기대합니다.
- 2016년 11월 > 미네소타주 이화동문 모임이 미네소타 한인 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이 날 모임에는 몇몇 동문들이 준비해 온 점심 식사와 디저트를 먹으며, 서로 그간의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특별히 황성숙 동문께서 지난 6월에 '미네소타 입양아를 위한 한국문화캠프' 봉사를 위해 미네소타를 방문한 한국 이화 후배들을 김성숙, 홍성주 동문과 함께 몇차례 환영, 대접한 일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으며, 마지막으로 모임의 막내 안수희 동문께서 준비해 온 클레이로 크리스마스 장식 만들기를 했습니다. 만든 작품을 서로 칭찬하며 마무리까지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New York 지회

회장: 박영숙(경영 86)

- 5월 >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투어를 했습니다. 풍성한 볼거리 가운데 이번에는 특별히 Roof Top에 전시된 작품들을 동화문화재단에서 프로그램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현수정 박사의 설명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또한 뮤지엄 투어가 끝나고 카페테리아에서 담소도 나누며 소중한 추억을 만든 모임이었습니다.
- 6월 > 북부뉴저지 모임이 있었습니다. 동문들이 함께 정겨운 인사를 건네며 점심 식사와 담소를 나누었고, 이어서 심리학

박사인 권혜경 동문의 "감정조절"을 주제로 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 8월 13일 > 즐거운 연중 행사 중 하나인 BBQ 모임이 뉴욕 Roslyn Heights에 있는 김성혜 동문(서양화 85)덕에서 있었습니다. 폭폭 찜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40여명의 동문들이 모여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 10월 29일 > 2016년 뉴욕지부 연례만찬이 플러싱에 있는 Reception House에서 열렸습니다. 유덕향 이사장님의 기도로 시작된 1부는 회장 인사 및 장학금 수여, 장학금을 받은 학생의 감사인사, 축가, 전임 김기령 회장에게 공로패 증정 후 교가 제창을 하고 단체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 11월 3일-11월 6일 > Texas주 Houston에서 열린 이화여대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뉴욕동창 1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2017년 10월 뉴욕에서 있을 총회에 전국의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만든 Welcome to NYC (건축 04, 윤선희 동문 제작) 동영상 상영했습니다. 다양한 세미나와 특강 및 투어 등 유익하고 즐거운 프로그램들에 참여했으며, 서울에서 온 총동창회장께 뉴욕지회에서 기금으로 \$3,000과 총동창회비 \$500을 전달했습니다.
- 2017년 2월 18일 > 2017년 신년 하례 모임이 롱아일랜드 박영숙 회장덕에서 있었습니다. 모처럼 화창한 날씨에 30여명이 넘는 동창들이 모여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함께 정담을 나누고, 음악을 나누며,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 즐거운 시간을 갖었습니다.



Northern California 지회 회장:곽정연(독문 76)

- 2016년 4월 > 곽정연 신입회장(독문 76)덕에서 새 임원단 선출이 있었습니다.
- 2016년 5월 > 고기타임 식당에서 '사회보장 연금과 메디케어'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 2016년 6월 > 나조케슬 식당에서 점심을 같이 하며, 북가주 동창 카카오톡 그룹 대화방을 개설했습니다.
- 2016년 7월 > 오가네 식당에서 해외동창 백만불 모금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 2016년 8월 > 곽정연 회장 자택에서 쏘넷양상블 (이아람, 관현악 94) 연주회가 있었고, 수익금 중 \$500을 동창회에 전달



했습니다.

- 2016년 9월 > 오가네 식당에서 박영순(사회 69), 최영자(식영 67) 동문의 회계감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 2016년 10월 > 산장식당에서 '유언상속 리빙 트러스트와 장례 절차'에 대한 강연을 경청했습니다.
- 2016년 11월 > 나조케슬식당에서 김옥교(국문 60) 동문의 '웨스트버지니아의 오두막집'과 장선용(국문 63) 동문의 '평생 요리책' 출간 축하 오찬회가 있었습니다.
- 2016년 12월 >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크리스마티 파티를 열고, 한 해를 마무리 하는 훈훈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Ottawa 지회

회장: 최영아(문헌정보 85)



- 2016년 5월 14일 > 엄경자 동문(약학 67) 자택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여 임원진이 행사 보고와 회계 보고를 한 후, 좀더 나은 동문회 운영을 위한 몇 가지 안건을 토의했습니다. 다른 도시로 가게 된 동문의 송별회와 수술 등 각종 어려움에 처한 동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한 후 찬송가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을 힘차게 부른 후 각자 한접시씩 준비해 온 음식으로 풍성한 식탁의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 2016년 6월 > 설치미술가 이은숙 동문이 오타와를 방문하여

프리젠테이션 시간을 가졌고, 현재 터키에 살고 있는 심숙경 동문의 방문으로 환영 모임을 가졌습니다.

- 2016년 8월 > 한영아 동문 덕에서 Fire Works Festival Final을 감상하며, 친교를 가졌습니다.
- 2016년 12월 > 부부동반으로 송년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선물교환과 삼행시 경연 등으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2017년 3월 > 주캐나다 한국대사관의 박인규 공사 내외를 감사로 모시고, 외교 활동 중의 경험담과 신앙 간증을 듣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 2017년 5월 > 정기총회를 갖고, 박은경 신입회장(장식미술 85)을 선출하고, 신입회원의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Seattle 지회

회장: 임지숙(시정각교육 78)

저희 시애틀지회는 약 50명의 회원들이 연 6~7회 정도 정기적으로 만나며 친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1월 > 신년 하례식
- 3월 > 황현숙(사회생활 75)동문의 노후 대책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 5월 > 시애틀의 아름다운 봄을 만끽하며, Washington Park Arboretum에서 꽃놀이를 가졌습니다.
- 6월 > 박명호(정의 78) 동문 집에서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문화 산책을 하였습니다.
- 8월 > 동문가족과 함께하는 피크닉을 가졌습니다.
- 9월 > 오랜 전통인 바자회를 열어 맛 좋기로 유명한 빈대떡, 만두, 김치 등을 판매하였습니다.
- 12월 > 부부 동반 송년 모임을 Double Tree Inn에서 갖고 한 해가 가는 아쉬움을 달래며 이야기의 꽃을 피웠습니다. 이 자리에서 University of Washington에 재학 중인 한국학 전공 대학원생에게 장학금 \$1,000을 수여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행사로는 8월에 본교에서 이화합창단이 이곳에서 공연을 가졌으며, 동문들이 함께 모여 저녁식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이정형(약학 63) 동문이 Asian Weekly로부터 'Asian Community 2016 최고 공로상'을 수상하셔서 축하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Southern California 지회 회장: 장경혜(피아노 75)



- 2016년 5월, 본교 개교 130주년 행사에 남가주 동문과 동문 합창단원 4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서해안 관광, 총동창회장 주최 오찬회에 참석하였고, '마타하리' 뮤지컬을 단체 관람하였습니다.
- 5월 30일 > 대희협력팀이 주관한 '이화사랑 모교방문 해외동창 초청 오찬 모임'을 가졌고, '창립 130주년 감사찬양예배' 후, '성가찬양제'에서 남가주 동문합창단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한 후에 모교 투어를 하였습니다.
- 5월 31일 > '창립 130주년 동창의 날' 기념행사가 있었고, 총장초대 오찬모임, 창립 130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올해의 이화인"들의 입장이 있는 후에 "합창제"가 시작되었으며, 남가주동문합창단 34명이 참여하여 정성을 다해 준비했던 "그대 사랑 있는곳" 과 "손에 손잡고" 두곡을 불렀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물리치고 영광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 6월 1일 > 원주에 있는 뮤지엄 '산' 관람은 너무 좋았으며, 김영주 총동창회장께서 편하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심에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박화자 (간호 66) 합창단 운영위원장, 박신화 (기독교학 70) 총무, 조경배 (성악 72) 회계계서 모교방문 찬양제 참석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 7월 2일 > "한여름 축제" (Summer Festival)가 Seal Beach에 있는 Leisure World에서 열려,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하와이안 댄스팀의 무대 공연에 송정현 (교육 57)동문 따님 Eleanor Han의 환상적인 독창, 양정남(간호 60)동문의 우아한 솔로 댄스 공연은 특히 압권이었습니다.
- 7월 16일 > 가든스윗 호텔에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경희 총장 방문 환영" 만찬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교가제창과 장경혜 동창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총장님의 인사말씀, 동창회 활동 현황보고, 총장님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 8월 >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이대남가주 동창회에서 주관한 음악회가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34명으로 구성된 이화여대 남가주 동문합창단과 모교 재학생 22명으로 구성된 이화챔버합창단이 함께 연주한 아름다운 밤을 수놓은 음악회였습니다. 모교 성악과 박미자 교수가 특별출연 하셔서 주옥같은 곡들을 연주를 해

주셔서 무대가 더욱 빛이 났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화여대 교가를 부르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감동적인 음악회였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생긴 수익금 중 일부는 남가주 동문합창단 운영자금으로, 나머지는 이대동창회에 입금되었으며, 그중에 일부는 장학 후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 10월 > 가을 일일관광 첫 행선지는 San Bernardino County지역에 있는 Oak Glen에 있는 사과농장이었습니다. 총 79명이 참석한 가운데 컨트리스타일 분위기 속에서 자연을 마음껏 즐기면서 생음악 연주를 들으면서 바베큐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현지에서 즉석으로 만든 따뜻한 애플파이는 너무나 맛이 있었으며, 오랫동안 추억에 남을 것입니다.
- 12월 > Norwalk에 소재한 Doubletree Hotel에서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송년파티가 개최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2명의 동문 자녀와 1명의 동문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고, 모교 130주년 기념동영상 상영이 있었습니다. 2부 "이화인의 잔치"시간에는 한나리(체육 92) 동문의 재직 있는 사회로 일년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려 보내는 흥겹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가주동문합창단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연주하고, 호산나 사물놀이패 공연, 발룸댄스, 독창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이어졌습니다.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기도하고 내년의 만남을 기약하면서 아쉬운 작별을 하면서 폐회를 하였습니다.

St. Louis 지회 회장: 정선주(성악 68)



- 세인트루이스 지회는 월 1회 '진선미 모임'을 통해서 친목을 다지고, 모교와 총동창회를 돕는데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기모임은 연 4회 (3, 5, 10, 12월) 가지고, 12월 모임에는 부부동반으로 이화 사위분들과 함께 합니다. 독서 모임은 각자 좋은 책을 추천해서 서로 돌려가며 읽습니다.
- 2월 > 세인트 루이스 박물관에서 프랑스 인상파 화가 "Edgar Degas" 의 작품을 같이 감상하고, 한국관에 들어서고 고려시대 도자기를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날씨도 모처럼 겨울답지않게 따뜻해서 밖에서 기념 사진을 찍는데 배꽃의 향기가 불어왔습니다.
- 3월 > 황성임 동문(사대 54입학)이 갑자기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모두가 애도하였습니다.
- 4월 > 뉴욕에서 열리는 북미주지회연합회에 반드시 참석하

기를 독려하였습니다. 본 지회에서는 매해 모교 동창회에 동창회비를 보내고, 선교부에 헌금을 합니다. 그동안 대강당 의자(16개), ECC기금(\$5000), 파주 기금(\$1000), 선배라면, 해외동창 기금(\$500씩 두번), 130주년 특별기금(\$1000)등 모교에서 하시는 사업에 정성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국제재단에 지난 2000년도에 시작한 세인트 루이스 지회 장학기금이 거의 \$15,000이 됩니다. 세인트 루이스 지회는 우리 이화여대가 하루 속히 안정을 찾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모교가 날로 발전해서 세계 속의 "이화여대"로 발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Toronto 지회 회장: 권용옥(영어교육 74)

- 토론토 지회는 매년 3월에 열리는 정기총회를 통하여 새로운 임원진을 소개하고, 지난 해의 활동을 보고하며, 새로운 계획을 세워나가며, 활발한 동문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동호회 모임으로는 핏츠비 기도모임, 성경공부모임, 글벗모임, 검기모임(Edward Garden), 골프모임과 이화가족 골프대회(Station Creek Golf Club), 가야금교실, 그리고 화음동호회 등의 크고 작은 모임을 통하여 함께 하기에 힘쓰며 선후배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봄 벚꽃놀이(High Park)로 봄을 맞이하였고, 여름 야유회(G Ross Lord Park)에서는 풍성하고 맛있는 점심, 재미있는 게임을 하며 동심으로 돌아가 한 여름의 정취를 마음껏 즐기는 하루였습니다. 가을에는 미대, 음대 동문의 녹미전 & 음악회(Joseph D. Carrier Art Gallery)로 모였고, Field Trip (Evergreen Brick works)도 가졌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연말파티(President Banquet Hall)에는 Black & White의 주제로 180여명의 동문과 부군들이 참석했습니다.
- 2016년 11월에 이기선(생물 58)동문과 심순옥(영어교육 68)동문의 부군이신 조성준 (온타리오주, 주의원)께서 캐나다 한인상 공로상을 수상하셨습니다. 2016년 휴스턴 동창에서 주관한 북미주 총회에 8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였고, 2018년도에 토론토지회에서 총회를 개최할 것을 이사회에 보고 하였습니다. 토론토에서 네번째로 개최되어지는 총회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준비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Vancouver 지회 회장: 강호정(경영 73)



- 2016년 8월 > 버나비 휴공원에서 하계 야유회를 가졌습니다. 이화 사위들의 솜씨가 돋보인 갈비 바베큐와 함께 풍성한 점심을 나눈 후, 박혜정(관현 82)동문의 지도로 노래교실, 퀴즈, 게임 등 유쾌한 친교를 나누고, 교가 제창 후 헤어졌습니다.
- 2016년 8월 13일 > 밴쿠버 시온 선교합창단의 34주년 정기공연에 이화챔버콰이어(지휘 박신화 교수) 협연이 있었습니다. '주의 사랑 세상 이기네' 외 3곡을 아름다운 하모니로 찬양하여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밴쿠버 지역의 이화인들이 자랑스런 이화를 느낄 수 있고, 참석한 동포들과 감동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 2016년 11월 27일 > Vancouver Golf Club에서 부부동반 송년 모임을 가졌습니다. 강봉숙(국제사무 73)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송년모임은 밴쿠버 지회장 손귀순 (문헌정보 71) 동문의 인사말과 부회장 최경숙 (교육 73) 동문의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이장연 (성악 85) 동문이 지도하는 K-Voice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과, 이장연 동문의 독창, 박혜정 (관현 82) 동문의 바이올린 연주가 있었습니다. 행운권 추첨, 넌센스 퀴즈의 시간을 통해 친교를 나눈 후 대외 협력처에서 보내온 동창회 수첩을 받은 후 교가제창으로 모임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2017년 2월 11일, 밴쿠버 서울관 로얄에서 설날모임이 있었습니다. 60년만에 찾아온 대폭설로 연기된 모임에 팔순을 맞으신 김난숙(약학 61), 오정숙(불문 61), 장춘실(교육 61), 정덕현 (의학 63) 선배님들의 생신을 축하하며 난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특별히 정덕현 선배님께서 동문들에게 맛있는 점심을 대접하여 주셨습니다. 임원진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떡과 케익을 맛있게 먹고 담소를 나눈 후 헤어졌습니다.

Washington D.C. 지회 회장: 김성혜(건강교육 88)



- 워싱턴 DC 지회 (회장 김성혜)는 2016년 3월 8일, 강춘형 (약학 65) 동문의 부군이시며 제 2대 포스트텍 총장을 역임하신 장수영 박사를 모시고, '대한제국의 역사'를 주제로 역사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역사에 관심이 많은 30여명의 다양한 연령대 동문들이 참석하여 역동적인 역사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 4월 23일, 이정렬 (사회생활 61) 동문님께서 80세 이상 되시는 동문들을 위한 Happy 80+ Party가 Sunshine Committee (조은희, 경제 91) 주최로 열렸습니다. 올해 처음 기획된 이번 행사는 올해 80세 이상이 되신 열세분의 선배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김복희 (성악 49) 동문의 독창과 강서라 (음악 49), 백경진 (피아노 50) 동문의 피아노 듀엣 연주였으며, 훈훈하고 뜻깊은 행사를 성대히 마쳤습니다.
- 사회부 (서혜경, 정의 90)에서 주관하는 상반기 봉사 활동으

로 Katherine K. Hanley Family Shelter를 방문하여 음식 제공 및 서빙을 하였습니다. 준비한 음식을 정성껏 나누어주고 부엌을 깨끗이 치우며 봉사를 통해 동문애를 쌓을 수 있었던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춘계 야유회가 5월 14일 버지니아 레스틴에 위치한 Lake Fairfax Park에서 열렸습니다. DC, 메릴랜드, 버지니아는 물론 멀리 웨스트 버지니아에서도 참석한 동문 50여명과 그 가족들이 모인 이날 행사에서는 가벼운 산책 후, 바베큐와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문화부장 최유정 (무용 96) 동문의 진행으로 게임을 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 2016년 새 동문 환영회를 10월 1일 최유정 (무용 96) 문화부장님께서 가졌습니다. 이명지(영문 67) 이사장, 김성혜 (보교 88) 지회장과 6명의 임원진들은 올해 새롭게 DC지회 동창회에 나온 14명의 동문들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이화의 정을 나누며, 서로를 더욱 알아가는 귀하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사회부에서 주관하는 하반기 봉사 활동으로 11월 14일 최숙자(도서관 69) 동문님께서 Cornerstones의 무료 방과후교실 이용 학생들을 위한 snack packing이 있었습니다. 많은 동문들의 적극적인 기부로 스낵과 음료수를 담은 팩을 100개 만들었으며, DC 지회 내 knitting 클럽에서 기증한 목도리와 함께 Food Pantry에 전달하였습니다.
- 2016년 총회 및 연말 파티가 12월 9일, Tysons Corner Marriott 에서 총 111명의 동문가족들과 함께 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총회는 회계 및 활동 보고와 차기 회장인 현 김성혜 회장의 인준으로 마치고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진 연말 파티는 동문들의 독창, 중창, 크로마하프 연주(이도실, 영문 60), 퀴즈게임, raffle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회의 친목과 즐거운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며, 특히 이번 행사에는 1939년 졸업 동문부터 2011년 졸업 동문이 참석함으로 76년의 차이를 넘어 함께 하는 뜻깊은 장이 되었습니다.

동창회 장학금 / 기금 소식

1. 모교 이화여대에 지급되는 지회별 / 동창 그룹별 장학금 / 기타 목적별 기금 현황

지회별 장학금	2016 지급액	2016 장학금 수혜자
남가주 지회	\$10,000	최예슬 (심리학 4) 외 3 명
뉴욕 지회	\$7,500	신나은 (소비자학 4) 외 2 명
디트로이트 지회	\$2,500	김승지 (간호학 3)
북가주 지회	\$7,500	조수빈 (중어중문학 4) 외 2 명
워싱턴디씨 지회	\$5,000	김홍경 (경영학 3) 외 1 명
워싱턴디씨 국제해기대학	\$2,100	Yoojin Lee, Juhyae Kim, Kati Kashima
휴스턴 지회	\$2,500	이예진 (국제학 3)

그룹별 장학금/연구기금 이름	2016 지급액
LA 영락교회 배꽃회 장학금	\$4,000
의과대학 연구기금	\$7,500

기타 목적별 기금 (기간:10/1/2014-9/30/2016)	지급액
기숙사 건축기금	\$307,500.19
이화제 2 의료원(마곡병원) 건축기금	\$661,601.48
간호대학 건축기금	\$78,700.00
기타 목적별 기금 TOTAL	\$1,047,801.67

2. 각 지역에서 지급되는 지회별 장학금 현황 (2016/17)

지회별 장학금	대상	지급액	수혜자
남가주 지회	동문 자녀	\$3,000 (3 명)	So Yon Noh, Ji Sun Wu, Hejung Ju
뉴욕 지회	지역 교포 자녀 대학생	\$4,000 (2 명)	Juliet Kim, Ye Jun Hahn
	이대 졸업생으로 대학원생	\$3,000	
밴쿠버 지회	동문 or 동문 자녀	\$1,000	
보스턴 지회	동문 자녀 대학생	\$500	최신자
시애틀 지회	U. Washington 한국어과 학생	\$1,000	Patric Thomsen
애틀랜타 지회	한미장학재단 남부지부를 통해 11 학년-대학원생	\$1,000	Floria Kim
휴스턴 지회	Christian 한인 여대생	\$2,000 (2 명)	Jiyu Cha, Jiwoo Park

S-DENTAL INSTITUTE
 고품격 덴탈 서비스
 2044 Center Ave. FL 2
 Fort Lee, NJ 07024
 T. 201-242-9700

뉴스타 "Jeny" 광정연 부동산
 주택 / 콘도 / 아파트 / 상가건물 / 사업체 / E-2
 www.norcalnewstarrealty.com

부동산 투자만큼 **완벽한 전문지식**이 요구됩니다.
 차원이 다른 **Professional**을 선택하십시오.

Cell Phone: 650-544-6099
 3400 El Camino Real, Suite 9, Santa Clara, CA 95051
 3626 Geary Blvd., Suite 208, San Francisco, CA 94118
 7033 Village Parkway, #210, Dublin, CA 94568

년도별 연례회의 주최지회

년도	주최지회	주최지회 회장
1976	Washington, D.C. / 워싱턴 지회	김정자(가정 62)
1977	York Club / 대뉴욕 지회	이해경(음악 50)
1978	Evanton, IL / 시카고 지회	전신애(영문 65)
1979	New York, NY / 대뉴욕지회	장한희(기독교 53)
1980	Southfield, MI / 디트로이트 지회	김신형(가정 49)
1981	Los Angeles, CA / 남가주 지회	김성자(교육 61)
1982	Chicago, IL / 시카고 지회	최순자(의과 66)
1983	New York, NY/ 대뉴욕 지회	조 연(약학 61)
1984	Philadelphia, PA/ 필라델피아 지회	장창희(가정 62)
1985	Gaithersburg, MD / 워싱턴 디시 지회	한순정(미술 58)
1986	San Francisco, CA / 북가주 지회	이명희(교육 62)
1987	New York, NY / 대뉴욕 지회	이부자(사회 60)
1988	Toronto, Canada / 토론토 지회	여정자(기독교 67)
1989	Evanston, IL / 시카고 지회	최경혜(법학 60)
1990	Los Angeles, CA / 남가주 지회	이희성(영문 60)
1991	San Francisco, CA / 북가주 지회	최종자(사회 62)
1992	Detroit, MI / 디트로이트 지회	김정숙(의과 62)
1993	Houston, TX / 휴스턴 지회	임예자(사학 65)
1994	New York, NY / 대뉴욕 지회	임병대(교심 60)
1995	Vienna, VA / 워싱턴 디시 지회	오성미(영문 64)
1996	Boston, MA / 보스턴 지회	김경애(의학 70)
1997	Toronto, Canada / 토론토 지회	정인영(물리 68)
1998	Atlanta, GA / 아틀란타 지회	김은숙(사학 68)
1999	Chicago, IL / 시카고 지회	윤미혜(사사 64)
2000	Annaheim, CA / 남가주 지회	김대훈(화학 60)
2001	Troy, MI / 디트로이트 지회	이해경(신방 69)
2002	Orlando, FL / 올란도 지회	하명숙(체육 66)
2003	San Francisco, CA / 북가주 지회	강영자(기독교 64)
2004	Houston, TX / 휴스턴 지회	김성혜(식영 72)
2005	Cleveland, OH / 클리브랜드 지회	이선희(교심 70)
2006	Toronto, Canada / 토론토 지회	강선희(화학 59)
2007	Fort Lee, NJ / 대뉴욕지회	최성남(약학 70)
2008	Seattle, WA / 시애틀 지회	이정형(약학 63)
2009	Denver, CO / 덴버 지회	이미옥(국문 68)
2010	Los Angeles, CA / 남가주 지회	오명애(장미 74)
2011	Boston, MA / 보스턴 지회	조수현(수학 76)
2012	Vancouver, CANADA / 밴쿠버 지회	강유순(약학 67)
2013	Washington, D.C. / 워싱턴 지회	오혜경(영문 72)
2014	San Francisco, CA / 북가주 지회	제갈숙경(기악 79)
2015	Atlanta, GA / 아틀란타 지회	김정희(약학 79)
2016	Houston, TX / 휴스턴 지회	김명옥(경영 75)
2017	Teaneck, NJ / 대뉴욕지회	박영숙(경영 86)

지회장 명단

주	지회	이름	졸업년도	과
AK	ALASKA	김명순	1962	간호
AZ	ARIZONA	김은미	1989	교육공학
CA	N. CALIFORNIA	곽정연	1976	독문
CA	S. CALIFORNIA	장경해	1975	피아노
CA	SAN DIEGO	연혜정	1963	사회
CO	DENVER	임은혁	1972	약학
GA	ATLANTA	장명옥	1981	영문
HI	HAWAII	이혜련	1984	영문
KS	KANSAS CITY	강명숙	1974	제약
MA	BOSTON	박순혜	1973	국문
MD	BALTIMORE	김정현	1959	정외
MI	DETROIT	김미애	1984	교육심리
MI	LANSING	조미영	1985	등양화
MN	MINNESOTA	홍성주	1989	경영
MO	ST. LOUIS	정선주	1968	성악
NY	NEW YORK	박영숙	1986	경영
OH	CINCINNATI	김영채	1959	영문
OH	CLEVELAND	임영미	1983	교육
OR	PORTLAND	김미진	1979	도예
PA	ALLENTOWN	김여름	1954	영문
PA	N.E.PA	김영화	1976	가정관리
PA	PHILADELPHIA	남광희	1973	의류직물
RI	RHODE ISLAND	이길자	1966	의학
TN	NASHVILLE	이명애	1976	의학
TX	HOUSTON	정미선	1985	수학교육
TX	NORTHERN TEXAS	강정숙	1963	교육심리
	WASHINGTON D.C.	김성혜	1988	건강교육
WA	SEATTLE	임지숙	1978	시청각교육
CANADA	EDMONTON	조용옥	1973	국문
CANADA	MONTREAL	김명원	1992	수학
CANADA	OTTAWA	최영아	1985	문헌정보
CANADA	TOTONTO	권용옥	1974	영어교육
CANADA	VANCOUVER	강호정	1973	경영



도심속의 휴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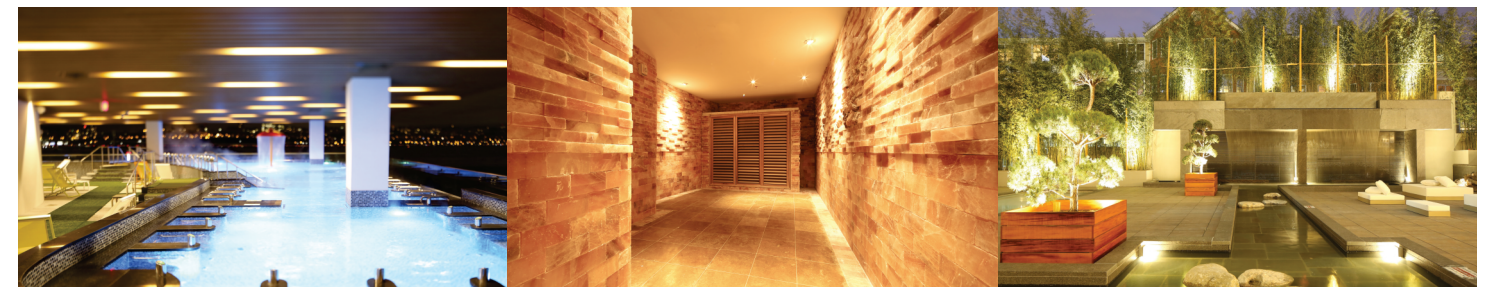
소조스파클럽에서 힐링의 시간을



맨하탄 전경으로 둘러 싸인 야외 바데풀

다양하게 즐길수 있는 찜질방들

폭포가 떨어지는 아름다운 야외노천탕들



660 River Road, Edgewater, NJ 07024

WWW.SOJOSPACLUB.COM

201 313 7200

총회 일정

10/26(목)	3:00 pm ~ 10:00 pm		호텔 체크인 및 총회 등록 시작
	8:00 pm ~ 10:00 pm		북미주지회연합회 정기 이사회
10/27(금)	7:00 am ~ 8:30 am		아침 식사
	Tour 가시는 분	9:30 am ~ 4:00 pm	맨해튼 시내 관광-Uptown Met Museum, The Cloisters, Central Park
		9:30 am ~ 10:30 am	감정조절 세미나
	Tour 안 가시는 분	2:30 pm ~ 4:00 pm	요가 세미나
		4:30 pm ~ 5:30 pm	이화동창 합창단 연습
	5:30 pm ~ 6:00 pm		각 지회 탤런트 쇼 리허설
	6:30 pm ~ 10:00 pm		총장님과의 만찬, 각 지회 탤런트 쇼
10/28(토)	7:00 am ~ 8:30 am		아침 식사
	8:00 am ~ 10:00 am		총회
	Tour 가시는 분	10:30 am ~ 4:00 pm	맨해튼 시내 관광-Downtown One World Tower, Ground Zero, High Line
		10:30 am ~ 11:30 am	척추건강 세미나
	Tour 안 가시는 분	2:30 pm ~ 4:00 pm	건강한 식품선택 세미나
		4:30 pm ~ 5:30 pm	이화동창 합창단 연습
	6:00 pm ~ 6:30 pm		리셉션
6:30 pm ~ 10:00 pm		총회 대만찬	
10/29(일)	7:00 am ~ 8:30 am		아침 식사
	8:30 am ~ 9:30 am		예배
	9:30 am ~ 10:30 am		총장님과의 대화 & 작별 인사

EWHA NEW YORK 2017 참가신청서

담당자 연락처 : 강혜경 준비위원장 201-370-4185 / 류은주 총무 201-294-7455

이름	한글				영문			
소속 지회								
거주지 주소	Street				State		Zip	
	City							
연락처	Home ☎				Cell			
	Work ☎				email			
졸업학과					졸업연도			
동행자 수	본인 제외	명			동행자 이름			

행사 날짜	행사 내역	참가비	인원수	합계
10/27 (금)	총회 참가 등록비 (8/31 이전 등록시 면제)	\$25		
	아침 식사 (\$25 value / \$15 뉴욕지회 제공)	\$10		
	Met Museum, The Cloisters, Central Park	\$90		
	총장님과의 만찬	\$100		
10/28 (토)	아침 식사 (\$25 value / \$15 뉴욕지회 제공)	\$10		
	One World Tower, Ground Zero, High Line	\$90		
	총회 대만찬	\$120		
10/28 (일)	아침 식사 (총동창회 제공) /예배			
총회 참가비 총액		\$		

신청서 참가비	신청서와 함께 개인수표 또는 Money Order를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Payable to the order : EWUAANY 반드시 이름, 졸업년도, 과, 지회를 수표에 적어주세요.
신청마감 9/30	보내실 곳 : Jung Eun Choi, 29 Hunt Ct. Jericho. NY 11753, U.S.A. 지불 문의/최정은: 516-666-7212
호텔 예약마감 9/30	Teaneck Marriott at Glenpointe Hotel, 100 Frank W. Burr Blvd. Teaneck, NJ 07666 T. 201-836-0600 "온라인 예약시"를 클릭하면 호텔 이화 site로 갑니다. ☞ 온라인 예약시 : Book your group rate for EWHA Womens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전화 예약시 Group Code : EWHA \$139/1박 : 1인 1실, 2인 1실, 4인 1실 (동일가)
콜택시	EWR (Newark Liberty International Airport) : \$49+TIP (toll fee \$8.50 포함) J F K (J.F.K. International Airport) : \$81+TIP (toll fee \$26 포함) LGA (LaGuardia International Airport) : \$66+TIP (toll fee \$26포함) 오렌지 콜택시 718-888-0404 (예약담당자 : Mr. Kang) 예약시 성명, 연락처, Flight No. 도착시간을 미리 알려주세요. 피켓서비스를 원하시면 \$8~12 (주차비) 추가입니다.
바하마 크루즈	일정 : 10/29~11/5 (7박8일) 출발지 : New York City (각 지회 전체광고 참고) 요금 : \$868.59 Interior Stateroom, \$918.59 Ocean View Stateroom, \$1138.59 Balcony 선금 및 지급일 : 1인당 \$250, 7/15까지 담당자 : 차승순 동문 517-937-8801